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on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Problem Behavior*

공유경(You Kyoung Kong)¹⁾

김희화(Hee Haw Kim)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support and community environment on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problem behaviors. Subjects were 579 3rd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Major findings were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problem behaviors. Neither gender differences nor grade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problem behaviors. Moderating effects of care by relatives or neighbors on mother's support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internal problem behaviors. Moderating effects of proximity to harmful facilities were found in relationships between after school self-care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s.

Key Words : 방과 후 자기보호(after school self-care),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어머니 지지(mother's support),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care by relatives or neighbors), 유해시설 근접성(proximity to harmful facilities).

I. 서론

여성의 학력 및 지위향상, 핵가족화와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인해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95년 47.6%에서 2000년 48.7%, 2002년 4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들 기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석사

²⁾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노인생활환경연구소 겸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Hee Haw Kim,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 30 Jangjeon-dong, Gue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hwakim@pusan.ac.kr

취업 여성들에게는 자녀 교육과 방과 후 보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명희, 1992).

방과 후 성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혼자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자기 스스로를 돌본다는 의미의 '자기보호(self-care 아동)'이라는 용어(Peterson & Magrab, 1989)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나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의해서 여성의 취업과 사회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핵가족화 되면서 과거의 확대가족에서 제공받았던 친족의 대리양육은 줄어들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기보호 아동의 수는 증가될 것이다.

취업모의 아동 양육문제는 취업모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라는 틀을 벗어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업모와 그 자녀를 위한 사회적 보육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영유아보다 학령기 아동은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장해 있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의 대상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있다(이옥, 1995).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방과 후 보호실태 및 자기보호 아동의 적응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Long과 Long(1983)은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의 관리가 부족하고 많은 시간 혼자 보내기 때문에 외로움, 공포, 스트레스, 슬픔을 많이 느끼며 또래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자기보호 아동에 대해 한명희(1992)는 부모와 상호작용 할 시간이 부족하여 고민이나 문제를 의논할 기회를 놓칠 때가 많고, 식사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영양과 발육 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형제끼리의 다툼이 빈번하여 교우관계에서도 충돌이 많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자기보호 아동은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고,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낮다(구은미, 1989). 이 외에도 자기보호 아동들은 놀이와 탐색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으며(Halpern, 1992), 돌보아 줄 성인이 없는 것에 대해 쓸쓸함이나 외로움, 불안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느끼기도 한다(김순임, 2003; 한명희, 1992). 이처럼 자기보호 상황에서 아동들은 발달상 취약해지기 쉽고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에 관심을 둔 국내의 선행연구(김순임, 2003; 오선영, 2003; 장영은, 1998; 최경순·정현희, 1996) 대부분이 위축, 불안, 외로움과 같은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을 다루고 있어 공격, 과잉, 비행행동과 같은 표출되는 외면화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통제하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일으키지만, 자기보호일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된다(Galambos & Maggs, 1991; Steinberg, 1986).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Rodman, Pratto, & Nelson, 1985; Steinberg, 1986)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고 성별보다는 오히려 연령이 자기보호에 따른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방과 후 보호에 관심을 둔 선행연구들(구은미, 1989; 김순임, 2003; 오선영, 2003; 옥경희·김미해·천희영, 2001; 장영은, 1998; Cain & Hofferth, 1989; Marshall, Coll, Mark, McCartney, Keefe, & Ruh, 1997)은 지배적인 보호형태에 초점을 두어 아동이 학교를 끝나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있는지에 따라 자기보

호, 부모보호, 부모 이외의 조부모 또는 친인척 어른의 보호를 받는 성인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보호형태에 따른 아동의 발달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자기보호 아동 중에서도 방과 후에 교내특기적성교육이나 학원, 공부방 등에서 보내는 아동이 다수이므로 자기보호시간은 아동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또한 부모나 성인보호 아동도 어른이 일시적으로 집을 비우거나 아동의 길거리 배회 등으로 인해 자기보호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보호형태에 근거하여 아동들의 방과 후 생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과 후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기보호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아동의 자기보호 정도에 따른 문제행동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과 후 자기보호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관심 및 지역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행동과 관련한 연구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제시되는 어머니 요인으로는 어머니 지지를 들 수 있다. 지지는 돌봄과 애착, 수용, 사랑으로 구성된 것으로 어머니 지지가 많을수록 아동은 문제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한다(남화정, 2001; 오경하, 2002; Barnes & Farrell, 1992). 이는 방과 후 자기보호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지지가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아동이 자라는 환경이 비교적 안전한지의 여부,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은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의 발달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옥경희 등 2001; Pettit, Bates, Dodge, & Meece, 1999; Vandell & Ramanan, 1991). 방과 후 자기보호가 불안정한 이웃환경에서 이루어질 때, 아동들의 문제행동은 증가한다(Coley & Hoffman, 1996; Coley, Morris, & Hernandez, 2004). 그리고 가족형태가 핵가족화 되면서 확대

가족에서 제공받았던 친족의 대리양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의 부모를 대신한 친척 또는 이웃의 어른들이 아동에게 주는 도움이나 관심의 정도는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어머니 지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 불안정한 지역사회 환경 지표로 유해시설 근접성을 검증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지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 및 유해시설 근접성을 중재요인으로 선정하여 이들 변인이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방과 후 자기보호와 아동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함을 밝히는데 있다.

진술된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부산광역시 4개구에 소재한 4개 초등학교 3, 6학년 총 20학급의 남·여 아동 679명을 유의표집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679부 중 한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57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3, 6학년으로 선정 한 것은 학령기 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관심이 다소 낮으나, 아직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연령이라 할 수 없고,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남·여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1)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는 학교의 정규수업이 끝난 후(방과 후), 아동이 집에서 또는 집밖에서 부모나 다른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서, 또는 친구나 동생과 함께 보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중과 주말에 「학교수업이 끝난 후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 없이 혼자서 또는 친구나 동생과 함께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보냅니까?」의 질문을 통해 일평균 방과 후 자기보호 정도를 분단위로 측정하였다.

2) 문제행동

문제행동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정서적 부적응의 결과이며, 가정, 학교, 기타 장면에서 행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문제행동은 위축, 수줍음, 불안, 우울과 같은 과잉통제된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 과잉행동, 비행과 같은 과소통제된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된다.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선희(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선희(2000)의 척도는 부모평정으로 개발된 것으로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 26문항,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예비조사를 통해 내적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편중된 응답을 보인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20문항, 22문항에 대해 아동이 지각하는 문제행동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 각각 .83, .88이었다.

3) 어머니 지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받는 사랑과 관심, 인정 등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들(구자은, 2000; 김명숙, 1995; 김영혜, 2003; 양돈규, 1997; 최진아, 1996)에서 사용된 어머니 지지 척도 문항 중 정서적 지지에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항 중 비슷한 내용의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로부터 받는 지지가 많음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1이었다.

4)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

아동에 대한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웃환경에 관한 선행연

구들(김성자, 2000; 이은정, 1995; 전수정, 2003; Pettit, Laird, Bates, Dodge, 1997)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친척 또는 이웃으로 조부모, 친척 어른, 학원 선생님 또는 친구의 부모님들이 아동의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동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아동학 전문가의 안전담당도를 구한 총 12문항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쳐 내적일치도가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한 나머지 9 문항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가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예비조사, 본조사 자료 각각 .75, .74이었다.

5) 유해시설 근접성

아동의 집 주위 유해시설 근접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호진(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해시설 이용 척도를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용유무가 아닌 유해시설 근접성을 조사하였다. 이호진(2000)의 척도 문항 중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시설에 국한시켜 본조사 척도를 구성하였고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 등과 같은 시설이 아동의 집 주위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응답방식은 4점 리커트 척도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시설에 대한 근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5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1회의 예비조사와 1회의 본조사를 거쳐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아동의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 척도 구성상의 문제점과 척도

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조사는 대상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질문지의 응답요령과 주의점을 설명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하였고,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679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중 한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579부(회수율 85%)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와 학년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주효과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성별차와 학년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면화 문제행동, 외면화 문제행동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을 독립변인으로 한 삼원변량분석(thre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방과 후 자기보호는

평균치(M=910, 주평균/분)를 기준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이하를 하집단으로 하여 집단구분을 하였다.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치는 <표 1>과 같고, 삼원변량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는 내면화 문제행동(F=14.09, $p<.001$), 외현화 문제행동(F=21.03, $p<.001$) 모두에 대해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과 학년은 문제행동에 대해 주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1>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

종속변인	성별 및 학년	방과 후 자기보호	
		상집단 (N)	하집단 (N)
내면화 문제행동	남	45.20 (146)	41.16 (182)
	여	44.44 (104)	41.93 (147)
	3학년	44.59 (70)	40.89 (178)
	6학년	45.00 (180)	42.22 (151)
	평균	44.88 (250)	41.50 (329)
외현화 문제행동	남	47.57 (146)	43.97 (182)
	여	46.98 (104)	41.88 (147)
	3학년	47.20 (70)	42.98 (178)
	6학년	47.37 (180)	43.11 (151)
	평균	47.32 (250)	43.04 (329)

2.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중재효과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

<표 2>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에 따른 문제행동의 삼원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화	F값
내면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1250.32	1250.32	14.09***
	성별(B)	1	12.74	12.74	.14
	학년(C)	1	63.24	63.24	.71
	A*B	1	19.45	19.45	.22
	A*C	1	40.79	40.79	.46
	B*C	1	73.26	73.26	.83
	A*B*C	1	70.79	70.79	.80
	오 차	571	50670.17	88.74	
외현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2300.72	2300.72	21.03***
	성별(B)	1	150.69	150.69	1.38
	학년(C)	1	3.93	3.93	.04
	A*B	1	93.63	93.63	.86
	A*C	1	2.52	2.52	.02
	B*C	1	9.04	9.04	.08
	A*B*C	1	138.68	138.68	1.27
	오 차	571	62478.78	109.42	

* $p<.05$ ** $p<.01$ *** $p<.001$

계를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이 중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 지역사회 환경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인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 지역사회 환경은 평균치¹⁾를 기준으로 평균치 이상을 상집단으로 평균치 이하를 하집단으로 하여 집단구분을 하였다.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의 영향(주효과)은 <표 2>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 지지와 지역사회 환경 각각의 주효과 및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 및 지역사회 환경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겠다.

1)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지지의 중재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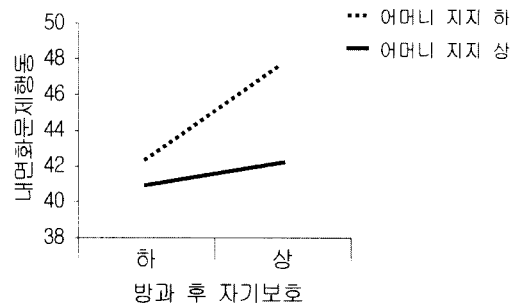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치는 <표 3>과 같으며,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지지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F=21.48, p<.001$), 외현화 문제행동($F=14.02, p<.001$) 모두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지지가 많은 집단보다 적은 집단에서 내면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높다.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F=8.75, p<.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1) 방과 후 자기보호(M=910, 주평균/분), 어머니 지지(M=25),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M=20), 유해시설 근접성(M=17)

<표 3>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

종속변인	어머니 지지	방과 후 자기보호		평균
		상집단 (N)	하집단 (N)	
내면화 문제행동	상집단	42.18 (136)	40.97 (195)	41.47 (331)
	하집단	48.11 (114)	42.28 (134)	44.96 (248)
외현화 문제행동	상집단	44.90 (136)	42.54 (195)	43.72 (331)
	하집단	49.52 (114)	44.00 (134)	46.76 (248)



<그림 1>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의 상호작용

<그림 1>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 어머니 지지($t=-4.33, p<.001$)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지만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적은 경우는 어머니 지지에 따른 내면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 어머니 지지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자기보호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 지지가 중재함을 알 수 있다.

〈표 4〉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에 따른 문제행동의 이원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화	F값
내면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1727.77	1727.77	20.39***
	어머니 지지(B)	1	1819.51	1819.51	21.48***
	A*B	1	741.55	741.55	8.75**
	오 차	575	48705.74	84.71	
외현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2640.31	2640.31	24.26***
	어머니 지지(B)	1	1498.35	1498.35	14.02***
	A*B	1	415.90	415.90	3.42
	오 차	575	62285.15	106.81	

* $p < .05$ ** $p < .01$ *** $p < .001$

2)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의 중재효과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치는 <표 5>와 같으며, 이원변량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는 아동의 문제행동 모두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의 상호작용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F=11.97, p<.01$)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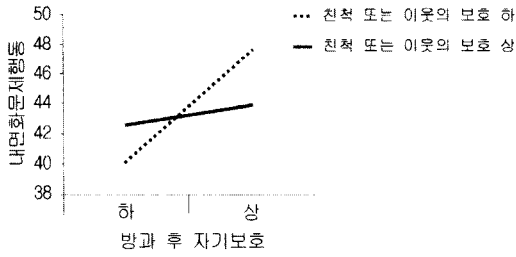
〈표 5〉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

종속변인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	방과 후 자기보호		평균
		상집단 (N)	하집단 (N)	
내면화 문제행동	상집단	43.96 (136)	42.60 (191)	43.28 (327)
	하집단	47.52 (114)	39.76 (138)	43.64 (252)
외현화 문제행동	상집단	46.52 (136)	43.71 (191)	44.88 (327)
	하집단	48.28 (114)	42.12 (138)	44.90 (252)

〈표 6〉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의 이원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화	F값
내면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1947.47	1947.47	22.43***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B)	1	10.33	10.33	.12
	A*B	1	1039.40	1039.40	11.97**
	오 차	575	49922.02	86.82	
외현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2818.93	2818.93	25.88***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B)	1	.98	.98	.00
	A*B	1	392.19	392.19	3.60
	오 차	575	62640.68	108.9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의 상호작용

〈그림 2〉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t=-2.28, p<.05$)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지만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적은 경우는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에 따른 내면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자기보호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가 중재함을 알 수 있다.

3)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해시설 근접성의 중재효과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에

〈표 7〉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

종속변인	유해시설 근접성	방과 후 자기보호		평균
		상집단 (N)	하집단 (N)	
내면화 문제행동	상집단	45.60 (156)	41.71 (150)	43.69 (306)
	하집단	43.70 (94)	41.32 (179)	42.14 (273)
외현화 문제행동	상집단	49.33 (156)	43.75 (150)	46.59 (306)
	하집단	44.00 (94)	42.44 (179)	42.98 (273)

다른 문제행동의 평균치는 <표 7>과 같으며, 이 원변량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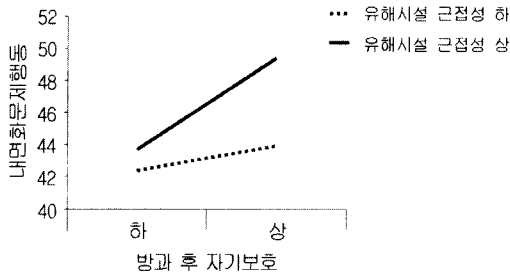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해시설 근접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F=14.13, p<.001$)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외현화 문제행동($F=5.16, p<.05$)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효과 검증을 한 결과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는 유해시

〈표 8〉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이원변량분석표

종속변인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화	F값
내면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1337.77	1337.77	15.14***
	유해시설 근접성(B)	1	177.93	177.93	2.01
	A*B	1	77.27	77.27	.88
	오 차	575	50793.09	88.33	
외현화 문제행동	방과 후 자기보호(A)	1	1736.04	1736.04	16.30***
	유해시설 근접성(B)	1	1504.18	1504.18	14.13***
	A*B	1	550.13	550.13	5.16*
	오 차	575	61230.33	106.49	

* $p<.05$ ** $p<.01$ *** $p<.001$



〈그림 3〉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의 상호작용

설 근접성($t=3.92, p<.001$)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지만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적은 경우는 유해시설 근접성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은 경우 유해시설 근접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방과 후 자기보호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해시설 근접성이 중재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3, 6학년 57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간의 관계 및 어머니 지지와 지역 사회 환경의 중재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장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 후 자기보호와 성별,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자기보호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Marshall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성인의 보호 없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면서 불안을 느끼기 쉽고, 집에 혼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아동들은 또래 및 성인과 어우릴 시간이 부족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수줍음, 위축된 행동을 보이고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방과 후 자기보호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결과는 Pettit 등(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방과 후 자기보호 아동이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또래의 압력을 더 많이 받음을 밝힌 Steinberg(1986)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연관시켜 보면, 아동들은 방과 후 자기보호 상황에서 성인의 관리 없이 또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또래로부터 반사회적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압력을 받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차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자기보호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Steinberg(1986), Galambos와 Maggs(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의 초등학교 2, 5학년,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자기보호와 문제행동 관계에서 성별차가 없다고 보고한 옥경희 등(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자기보호를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보호형태가 아닌 시간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해 재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방과 후 자기보호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년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4학년과 7학년을 대상으로 자기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에 학년차이가 있음을 밝힌 Rodman, Pratto, Nelson(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4

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들이 성인보호 아동들보다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나, 7학년에서는 자기보호 아동들이 성인보호 아동들보다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고학년일수록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고 기간이 길다(한명희, 1992)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방과 후 자기보호 정도가 많았던 고학년에서 오랫동안 문제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해서만 유의미하였다. 내면화 문제행동은 방과 후 자기보호 상황에서 아동들이 느끼는 외로움, 불안과 같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어머니의 애정, 관심, 존중, 이해와 같은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어머니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감독이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Pettit 등(1997)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본다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드러나는 행동적 증상이므로 방과 후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실제 감독행위가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는 아동의 문제행동 모두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았으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방과 후 자기보호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웃의 보호를 받은 여아가 받지 않은 여아보다 학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온 Pettit 등(1997)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과 후 돌보아줄 성인이 없는 아동에게 이웃의 어른들이 주는 도움이나 관심, 관리의 정도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므로 아동의 양육에서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시설 근접성의 주효과 및 방과 후 자기보호와 유해시설 근접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흥업소, 오락실, PC방과 같은 유해시설이 청소년의 비행을 부추길(김성자, 2000; 주복동, 2002) 뿐만 아니라 호기심 많은 아동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조장함을 나타낸다. 현대사회의 도시화로 인한 자연적 놀이 공간의 상대적인 축소와 향락산업의 팽창으로 아동 유해시설이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있으며, 유해시설과의 지리적 근접성은 아동이 유해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배경이 되므로(이동홍·이윤정, 2005) 지역사회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되도록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이 성인의 보호를 받지 않는 방과 후 시간에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의 증대는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한다.

둘째, 방과 후 자기보호가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 지지 및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에 의해 중재되고, 방과 후 자기보호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해시설 근접성에 의해 중재된다. 즉 방과 후 자기보호시간이 많더라도 어머니지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가 많을 때 내면화 문제행동은 줄어들고, 유해시설

근접성이 낮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은 줄어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아동의 방과 후 자기보호를 부모나 다른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는 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 지지, 친척 또는 이웃의 보호, 유해시설 근접성 등 중재요인의 효과는 방과 후 자기보호에 따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친척 또는 이웃의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되도록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함을 나타낸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가족, 지역사회 환경과 더불어 아동 개인적 요인과 또래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방과 후 활동 유형에 따라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이 달라짐(김희화, 2004; Posner & Vandell, 1999)을 감안해 볼 때, 방과 후 자기보호 시간에서의 활동 유형을 구분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구은미(1989). 자기보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희(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탐색.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자(2000). 사회환경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임(2003). 방과 후 보호자 유무가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혜(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수용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2004).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어머니 감독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1(1), 75-94.
 남화정(2001).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경하(2002).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선영(2003). 방과 후 보호형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취업모 자녀의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옥경희 · 김미혜 ·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이동홍 · 이윤정(2005). **청소년의 방학생활 중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대책 :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1회 대학생 아이디어 논문경진대회, 133-147. 서울 : 청소년위원회.
 이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 연구. **아동학회지**, 16(1), 3-20.
 이은정(1995). 부모역할 지지체계와 유아의 인기도 및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진(2000). 학교주변 유해환경 이용과 청소년의 건강위험행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영은(1998). 방과후 보호형태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

- 년 아동의 심리적 복지감과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수정(2003). 양육 및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이혼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복동(2002). 중산층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7(2), 107-119.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 능력.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통계연보** p.175.
- 한명희(1992). 학령기 아동의 자기보호 실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G. M., & Farrell, M. P.(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Cain, V. S., & Hofferth, S. L.(1989). parental choice of self-care for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65-77.
- Coley, R. L., & Hoffman, L. W.(1996). Relations of parental supervision and monitoring to children's functioning in various contexts : Moderating effects of families and neighborhood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51-69.
- Coley, R. L., Morris, J. E., & Hernandez, D.(2004). Out-of-school care and problem behavior trajectories among low-income adolescents : Individual, family,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 added risks. *Child Development*, 75(3), 948-965.
- Galambos, N. L., & Maggs, J. L.(1991). Out-of-school care of young adolescents and self-reported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44-655.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city children : A study of the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Long, T. J., & Long, L.(1983). *The handbook for latchkey children and their parents*. New York : Arbor House.
- Marshall, N. L., Coll, C. G., Mark, F., McCartney, K., Keefe, N., & Ruh, J.(1997). After-school time and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3(3), 497-514.
- Peterson, L., & Magrab, P.(1989). Introduction to the special section : children on their ow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2-7.
-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Meece, D. W.(1999). The impact of after-school peer contact on early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is moderated by parental monitoring, perceived neighborhood safety, and prior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0(3), 768-778.
- Pettit, G. S., Laird, R. D., Bates, J. E., & Dodge, K. A.(1997). Patterns of after-school care in middle childhood :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outcomes. *Merrill-Palmer Quarterly*, 43(3), 515-538.
- Posner, J. K., & Vandell, D. L.(1999). After-school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low-income urban children :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3), 868-879.
- Rodman, H., Pratto, D. J., & Nelson, R. S.(1985). Child care arrangements and children's functioning : A comparison of self-care and adult-care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413-418.
- Steinberg, L.(1986). Latchkey children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2(4), 433-439.
- Vandell, D. L., & Ramanan, J.(1991). Children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 Choices in after-school care and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37-643.

2005년 12월 31일 투고 : 2006년 3월 10일 채택